

투데이 칼럼

### 전북, 각자도생 시대 끝났다... '동서 메가시티' 로 체급 키워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을 선언하며 출범했으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냉혹하다. 인구 175만 선은 붕괴 직전이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과 인근 광역도시로 떠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14개 시·군이 쪼개져 각자 도생하는 현재의 행정 구조에 있다.

좁은 지역 내에서의 중복 투자와 소모적인 관할권 분쟁은 전북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 이제 남은 지도를 접고, 전북의 체급을 키울 '이분법적 메가시티' 로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첫째, 서부권은 '글로벌 경제 창구' 인 지축형 산업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을 하나로 묶는 서부권은 인구 약 64만 명의 거대 경제 공동체다. 이곳을 세만금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품고 있다. 시·군 경계를 넘어 '세만금 메가시티' 체제로 행정력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다. 인구 60만 이상의



**이 장 호**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체급은 교육, 의료, 상업 시설이 외부 의존 없이 스스로 순환할 수 있는 '자족형 도시'의 완성형이다. 이차전지,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를 단일 행정 체계에서 결정하고 집행한다면, 서부권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신산업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둘째, 동부권은 '인구 110만의 광역 대도시'로 재편해야 한다. 전주를 정점으로 완주,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을 잇는 '통합 권주권'은 인구 111만

명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특례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다. 전주가 보유한 상급 의료, 교육, 행정 서비스를 동부권 8개 시·군 주민들이 내 집 앞 인프라처럼 누리는 광역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 전주가 브레인(R&D) 역할을 수행하고 인근 시·군이 농생명 바이오 실증 및 프리미엄 휴양 기능을 분담하는 유기적 결합만이 전북의 소멸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셋째, 행정 효율성이 곧 도민의 경쟁력이다.

시·군 단위로 분산된 행정력은 대규모 국제 사업 유치나 외자 유치 시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두 개의 거대 행정 구역으로 구조를 단순화하면 의사결정은 가속화되고 중복되는 행정 비용은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도민의 복지와 미래 인재 양성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서부권은 '성장'과 혁신'을, 동부권은 '상생'과 '정주'를 담당하는 명확한 분업 구조가 전북 전체의 파이를 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 구역 개편은 단순히 선을 다시 긋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 기업에서 일하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향유하고 품격 있게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생존 전략이다. 변화를 주저하며 기득권에 안주할 시간이 없다. 64만의 서부 산업벨트와 111만의 동부 광역생활권이라는 '부 트랙 동·서 메가시티' 전략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붙잡아야 한다.

독자재언

### 봄철, 음주 후 전동킥보드도 안전 필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야외활동과 이동이 늘어나는 봄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간편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져야 할 시기이다.

특히 음주 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가벼운 이동수단이라는 인식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작은 충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에서 차량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보행자와 가까운 공간을 지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이용자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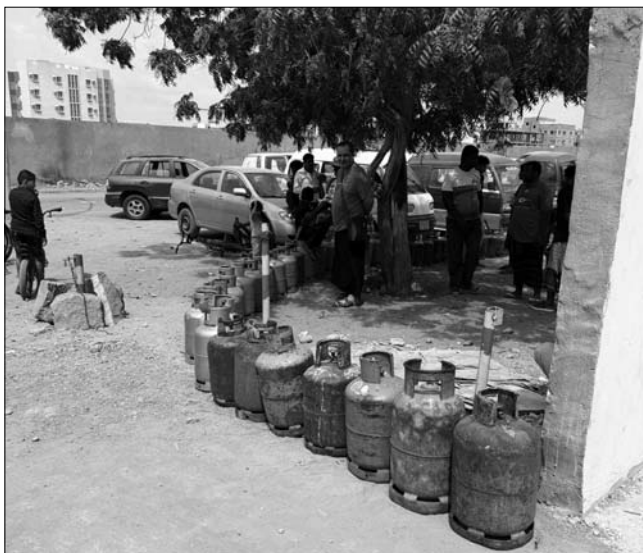
보행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의 부주의한 운행은 넘어짐, 충돌, 보행자 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 수칙 준수와 음주 이용 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이동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따뜻한 봄날의 여유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음주 후에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작은 실천이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유해인 고창경찰서 모영지주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충전소 앞에 길게 늘어선 빈 가스통



24일(현지 시간) 예멘 아덴에서 주민들이 빈 가스통을 줄지어 세워둔 채 나무 아래 모여 충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수입 비용 상승, 주요 생필품 관련 정책 변화 등으로 필수 재화의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예멘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사내 · 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 국제 유가가 결국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와 원자재, 운송비가 동시에 인상돼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전쟁 8일 차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다. 2022년 3월 이후 하루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 세계 원유 20%가 수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저장 시설이 부족해진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여 원유값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경제 충격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임계점에 거의 임박한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석유화학 업종이다. 원유를 정제해 나오는 나프타로 에틸렌을 생산해 공급하는 여천CC는 일부 고객사에 "제품 공급이 일시적으로 지연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를 활용해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전 업종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전쟁이 지속될 경우 중동산 원유를 대체해서 다른 유종 확보를 해야 된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금속인 알루미늄 가격도 약 7% 상승하며 전고점을 돌파했다. 생산원가의 약 40%가 에너지 비용이라 유가에 민감한 데다 중동 지역 생산 비중이 9%가 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중동사태 여파로 컨테이너 운임비가 약 72% 상승하면서 주로 배로 수출품을 나르는 자동차, 배터리, 철강업체도 타격을 받게 됐다. 국제 유가 폭등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이정희 개인전 '우주(뇌)의 현'

제30회 이정희 개인전이 3월 10일부터 15일지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전시됐다. 페르나르 베르베르 장편소설 '뇌'를 읽으며 받았던 영감들을 엮어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작가의 '우주(뇌)의 현'(The Cosmic Strings)이 열린 것이다.

우주란 커다란 세계 속에서 나의 존재와 상관관계를 묘사한 전시는 무엇인가와 무형적 인식을 표현한 작업이다.

작품은 순수한 내면의 이미지가 활화산처럼 피어나거나, 이성적 사고와 감정적 본능이 대립 또는 균형을 이루고, 수많은 생각과 에너지가 입을 통해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

인간의 두뇌 형상을 중심으로 원, 사각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 도형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 작품은 현대인의 정신구조를 해석하려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8·12' 시리즈 작품도 흥미를 유발한다. 8·12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의 기억과 추억을 1호 크기 캔버스에 옮겨놓은 100점으로 구성된다.

누구나 거쳐 왔을 그 시절의 기억과 추억을 통해 오늘의 나를 반추해보자는 취지다. 작가는 "인간의 뇌는 곧 우주며, 이는 또한 내면(감정) 에너지의 집합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면의 에너지와 의식의 확장을 표현하고, 무의식 속의 깊은 사고를 나타내 보려 고민을 많이 했다. 작품에서 선을 자주 이용한 것은 생각의 흐름이나 감각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며, 수많은 인물 형상이 등장하는 것은 기억, 감정 등 다양한 자아의 조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

